

전북대, 국내 한옥교육 메카 입증

한옥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 정부 지원받아 건축 전문가에 한옥설계교육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가 2020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교육을 6개월 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간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2011년부터 4년 간 이 사업에 선정돼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룬 전국 최고 수준의 한옥교육을 실시해왔다. 정부 사업으로 그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시작되면서 전북대가 다시 선정되며 한옥교육의 국내 최고 기관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전까지 3년 연속, 이번 역시 최우수교육기관에 선정됐다.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올해도 한옥 관련 이론 강의와 한옥마을 및 건축 답사, 한옥시공실습 등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대 교수진 및 한옥관련 전문가와 함께 특히 인간문화재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전북대 석좌교수)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5월 중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부터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처음 등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반을 운영하고 이전에 교육받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개설해 수준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실습비 지원을 통해 시공실습 결과물인 정자 건축을 실습이 끝난 뒤 버리지 않고 이를 캠퍼스 본부 앞과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고창아산초등학교 등 공공기관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이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에도 참여해 소외 계층을 위해 낡은 담장 페인트 칠하기와, 고창군의 농촌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헌집고쳐주기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호주, 독일, 불가리아 등에 한옥 수출도 추진하고 있어 한옥을 통한 세계화도 모색하고 있다. 남해경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이 사업에 우리대학이 다시 선정된 것은 국내 최고의 한옥 건축 교육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룬 교육으로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그간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와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옥캠프', '외국인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등을 운영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한옥전시회를 개최해온 바 있다.

또한 고창캠퍼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실습장을 설치해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 국내 유일한 한옥전공을 설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교육을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가 2020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은 전북대 한옥시공 실습 모습. /정은성기자

전주비전대, 공간정보 선도한다

국토부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4년 연속 선정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비전대는 올해도 사업비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래밍 및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개발 전문 인력 집중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총 3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를 심사,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평가에서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는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중 무인항공기(UAV), 3차원 콘텐츠 및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무 및 취업역량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년도 사업성과보고서 평가 중 개선하고 트렌드 기술을 접목해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담았다.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VR·AR) 교육과정,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초경량비행장치/드론정비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이 그것이다. 심정민 지적토목학과 사업단장(사진)은 "올해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해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융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문교원 연수, 자격증 및 취업특강,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면서 "그간 3년동안 열성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공무원 및 공기업에 82명을 취업시키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도 공간정보를 선도하는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이 우수업체에 취업해 지역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는 2019년도 기준 전북지역 지방직 공무원에 20명, 국토정보공사 7명, 코레일 4명, 도로공사 1명 등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시동' 이달부터 늘부(父兄 놀자(子)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5월부터 학부모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늘부(父兄 놀자(子) 아버지 교육,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발달학교 등이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직장 및 단체, 군부대, 지역이동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오는 14~28일까지 장수번암지역이동센터를 비롯해 10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버지 교육은 오는 16일 오전 10~12시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아버지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은성 기자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출입절차 강화

전북교육청, 제1회 검정고시시험 장소 공고 · 유의사항 안내

전북교육청은 2020학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c.go.kr) [알림마당 고시/공고]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초졸 95명, 중졸 228명, 고졸 833명 등 총 1,154명이 지원했으며, 전주이중중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평화중학교, 전주교도소, 송천정보통신학교 등 5개의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른 시험장소는 도교육청 [알림마당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한 시험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대폭 축소했고, 전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심대상에 대한 조치, 시험장 사전·사후 방역소독,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및 출입절차도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중이거나(또는 자가격리중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를 자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응시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니 응시자는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진행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험은 5월 23일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6월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화상시스템 이용 온라인 입시상담

5월 16·23일, 6월 13·20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도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시상담인 On-line JENU 입시비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웹캠과 화상서비스 등 화상시스템을 통한 고3 수험생들과의 1:1 맞춤형 온라인 입시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화상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에 방문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한 뒤, 문자로 안내한 URL을 통해 화상서비스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제공된 코드번호를 통해 비회원으로 입장하면 된다.

전북대는 고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등교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주말인 토요일을 이용해 5월 16일과 23일, 6월 13일과 20일 총 4회에 걸쳐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입시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수험생을 위해



전북대 화상시스템 통한 고3 수험생 및 출현 온라인 입시상담 서비스. /정은성 기자

온-오프라인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